

_____교구 _____구역 성명【 】 점수 점

들어가는 말

누군가에게 사랑의 선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? 그때의 상황과 느낌을 잠깐 나누어 봅시다.

말씀 속으로 - 들어가 봅니다. (룻 3:14-18)

14.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밭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
15.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겹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여섯 번 되어 룻에게 지워 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
16.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
17.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여섯 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 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
18.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

1. 룻은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언제까지 머물렀으며, 그녀가 머무른 이유는 무엇입니까?(14절)

=>

2.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호의는 무엇입니까?(15,17절)

=>

3. 본문에 나타난 보아스의 성품을 살펴봅시다.(14-15,17-18절)

=>

4. 보아스는 룻을 신중하고 친절하며 책임 있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?

=>

5. 내 주변에 룻과 나오미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?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말해봅시다. (각자 돌아가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.)

=>

기도

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아 소망 중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 누군가의 도움으로 순간마다 호의를 입게 하신 주님, 나 또한 주위의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, 그들의 필요를 따라 친절과 섬김, 그리고 사랑으로 대하게 하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